

의안번호	제967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2. 1. 24. (제111회)	

## 「부산항신항 용원 우수로 정비사업 촉구」 건의안 (심영석 의원 대표발의)

발 의 자	심영석, 구점득, 백승규, 주철우, 김태웅, 정순욱, 이천수, 김장하, 권성현, 지상록, 최은하, 손태화, 문순규, 이현순, 김상현, 노창섭, 김종대, 전홍표, 김상찬, 김우겸, 백태현, 조영명, 이우완, 김경희, 박선애, 정길상, 한은정, 박현재, 박성원, 최영희, 김순식, 최희정, 공창섭 의원
발의연월일	2022. 1. 7.

# 「부산항신항 용원 우수로 정비사업 촉구」 건의안 (심영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67
----------	-----

발의연월일 : 2022년 1월 7일

발 의 자 : 심영석, 구점득, 백승규, 주철우, 김태웅,  
정순옥, 이천수, 김장하, 권성현, 지상록,  
최은하, 손태화, 문순규, 이현순, 김상현,  
노창섭, 김종대, 전홍표, 김상찬, 김우겸,  
백태현, 조영명, 이우완, 김경희, 박선애,  
정길상, 한은정, 박현재, 박성원, 최영희,  
김순식, 최희정, 공창섭 의원(33명)

## 1. 제안 이유

- 부산해양수산청(부건소)에서 진해구 용원동 [부산항신항 용원 수로 정비사업] 기본계획이 예정되어 있어 지역에 꼭 필요한 침수 예방과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준설 작업과 친수환경 조성이 필요함.
- 항만 관련 종사자의 급증으로 인해 임시 가교에서 교통정체가 발생되고 있어 지역주민들이 임시 가교를 4차선 이상의 교량으로 설치해 주기를 절실히 요구함.
- 부산항신항의 명품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출렁다리, 둘레길, 보도교와 같은 친수공간 사업을 접목시켜 진행되기를 건의함.

## 2. 주요 내용

- 매년 집중 폭우 시 수로에 쌓인 토사로 등으로 인해 북컨테이너 부지, 신도시, 어시장 일대의 침수로 많은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음.
- 항만 개발 사업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에게 보상 차원의 문화공간 조성이 필요함.
- 지역주민들은 우수로에 쌓인 쓰레기와 오물로 인해 모기, 깔따구 등의 벌레와 해충이 들끓어 여름철이면 창문도 열지 못하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음.

- 신도시의 흉물로 남아 도시 미관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는 우수로를 친수공간으로 조성해 주기를 건의함.

3. 건의문 : 붙임

4. 건의처 : 국회의장, 해양수산부장관, 부산항건설사무소장,  
경상남도지사, 창원시장

# 「부산항신항 용원 우수로 정비사업 촉구」 건의문

부산항신항의 용원마을 앞쪽은 원래 바다였지만 1997년 항만 건설과 컨테이너 부지로 조성되면서 용원만의 어시장에서 안골포 왜성 아래까지 인위적으로 우수로가 조성되었다.

현재 북컨테이너 부지 북쪽은 용원 우수로를 따라 택지를 조성해 1만 5,000명의 주민이 생활하는 신도시로 변모하였고, 맞은 편에는 7,000 세대의 택지가 추가 고시되어 아파트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용원어 시장은 근대까지만 해도 경남 제일의 어시장이었지만 부산항신항 개발 사업으로 인해 모든 어장을 잃게 되어 지금은 작은 어촌의 어시장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래서 뜻있는 지역주민들이 수십 년간 무단 투기된 어폐류로 인해 썩어가고 있는 용원만과 시대의 변화에 뒤떨어진 어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4년 동안의 노력 끝에 해양수산부로부터 방재언덕 및 수변공원 사업을 승인받아 착공하기에 이르렀다.

방재언덕의 핵심시설은 용원동의 상습 침수 예방을 목적으로 하며, 부경신항수협 어판장까지 사업이 계획되어 있다.

하지만 수로를 따라 남쪽에 조성된 신항아파트 단지 및 항만도로는 지난해 7월과 8월 폭우 시 7km 정도 침수되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침수피해의 원인이 수로에 쌓인 토사가 하수구를 40% 정도 막아서 발생한 것이므로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로 준설이 시급하다.

또한, 항만의 발전과 함께 항만 관련 종사자들이 급증하여 수로에 임시로 설치된 가교로는 폭증하는 교통량을 해소할 수 없고, 수로 물의 흐름도 방해하고 있으므로 4차선 이상의 교량 설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상황에서 뜻있는 주민들이 모여 해양수산부에 용원 우수로 준설 및 친수공간 조성을 건의하여 11억 원의 설계 용역비를 확보해 1년 동안의 현장 조사 후 2022년 4월에 230억원의 사업착공을 계획하고 설계 중이다.

설계 용역 기간 중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삭막한 항만시설 외곽에 출렁다리, 둘레길, 산책로, 보도교와 같은 문화공간을 추가하였으며, 이로써 진해 동부권 최고의 문화공간이 되리라 확신한다.

그런데 특정 단체의 일부가 수용 불가능한 “용원 우수로에서 안골 바다까지의 연결과 우수로 복개 관련 사업권을 요구” 하며 용원 우수로 정비사업을 방해하자 해양수산부는 “지역 내 반발이 심하면 사업 진행이 어렵다” 라고 주장하면서 사업을 포기하려고 하고 있다.

이 사업은 항만 관련 기관인 해양수산부 없이 창원시와 경상남도가 자체적으로는 추진할 수 없는 사업으로 절대 다수 지역민들에게는 침수 피해 예방과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천재일우”의 기회이므로 창원시는 반드시 유치해야 하는 사업이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구로서 해양수산부와 관련 기관에 부산항신항 용원 우수로 정비사업을 신속히 진행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신항지역 침수문제 해결과 오염된 우수로 정화 및 우수의 원활한 배출을 위해 용원 우수로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라.

하나. 용원 우수로 남측과 북측의 원활한 교통 소통과 주민 왕래를 위해 교량과 보도교를 설치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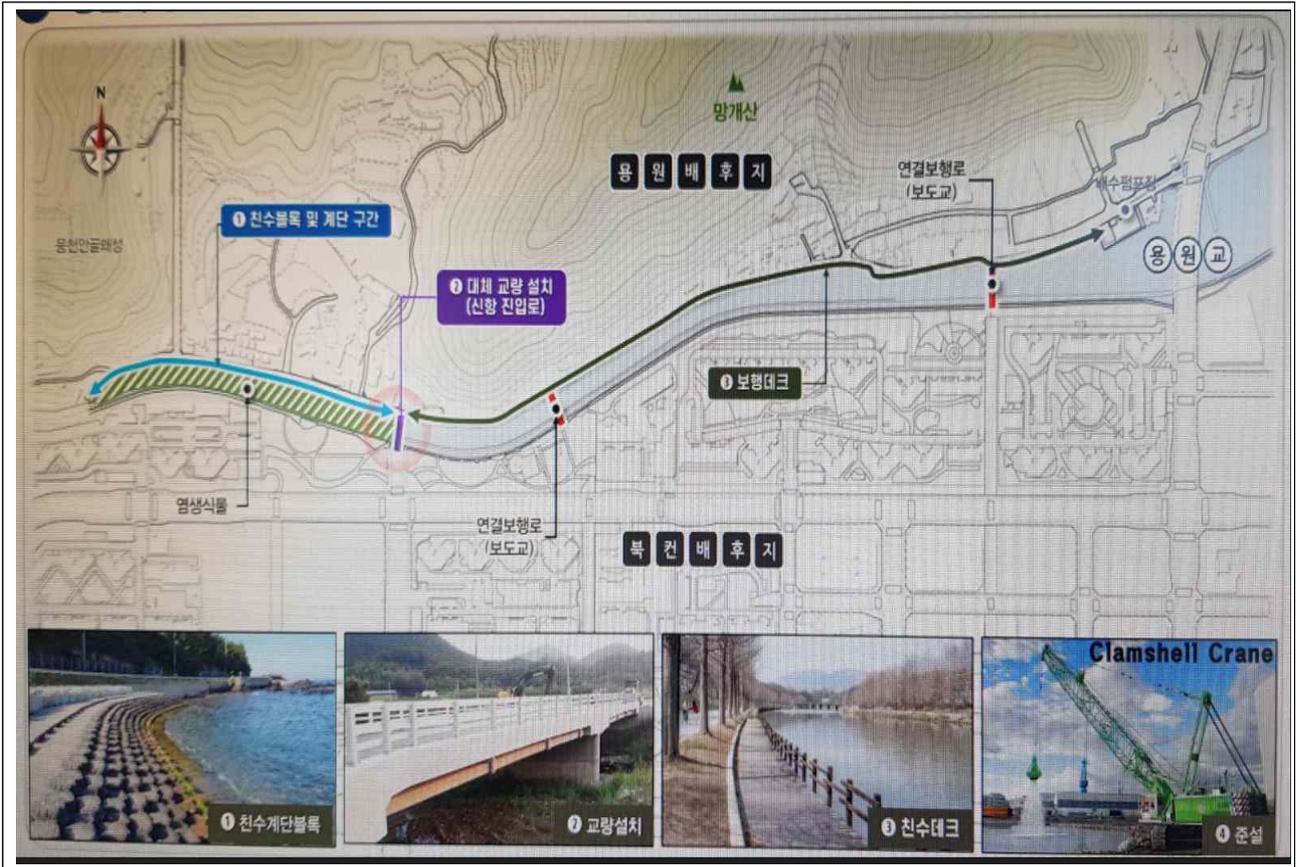
하나. 용원 수로 정비사업 진행 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용원어시장 방재사업(방재언덕)과 우수로 정비사업의 동선을 연결하여 둘레길, 출렁다리, 쉼터, 조명 등을 만들어 진해 동부권의 명소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라.

2022년 월 일

창원시의회 의원 일동

<첨부자료 1>

## 용원 우수로 도면



<첨부자료 2>

## 항만도로 및 주거지역 침수 사진

1. 용원 수로에 설치된 우수 배출구가 토사로 인해 40% 막혀서 집중 폭우 시 계속 주거지역 및 항만 도로가 침수됨



2. 항만 주도로 침수



3. 신항 아파트 주변 도로 침수

